

8월15일(월)/살후 3:1~5

제목: 방해자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심술궂은 사람에게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다(1~2). 바울은 비범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기도해 달라는 사람을 적대하거나 미워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위로의 말씀도 전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 주셔서, 모든 사역을 충실히 잘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3~4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어진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거되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에 둘러 쌓여있다. 이러한 곳에서 사는 우리들 중에 위장과 신령에 탈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결코 홀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악한 자 앞에서 항상 굳게 서있고, 쇠퇴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은 누구인가? 악한 자와 당당하게 직면하여 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해자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

8월16일(화)/살후 3:6~15

제목: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바울은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였다. 그들 중에는 재림이 곧 있을 것이므로 일상의 일을 중단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11절). 그들은 곧 있을 재림에 대한 흥분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매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기의 예를 들었다. 바울은 스스로 아무에게도 양식을 대가없이 얻어먹은 일이 없었고, 도리어 어떤 사람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였고, 또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원했다(8~9절).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명하기를 자기가 먹을 것은 스스로 벌어서 먹으라고 하였고,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였다(10~12절).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그릇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도록 하였지만, 그들을 원수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훈계라하고 하였다(14~15절). 예수님 자신도 나사렛의 훌륭한 목수이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아마도 충실한 직업인으로 생을 보내셨을 것이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일할 수 있는데, 단지 게으름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그 식탁에 앉지 말아야 한다.

8월17일(수)/살후 3:16~17

제목: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나 값진 인사로 끝을 맺는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도 가끔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평강을 준비해두고 계시다가 ‘적절한 때’ 에, 그리고 ‘일을 치룬 후’ 에 우리에게 놓아두신다. 고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다. 주어도 못 받아먹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일의 성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당장 눈앞의 결과 보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원적인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편지가 자신의 편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을 하였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17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늘 함께 있기를 기도하였다(18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생활태도만 고친다면 ‘때마다’ ‘일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8월18일(목)/딤후 1:1~2

제목: '궁휼'이라는 단어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서두에 늘 축복의 인사로서 시작한다(1절). 그리고 어느 편지든지 항상 ‘은혜’ ‘평강’ 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한 어휘가 더 추가되는데 그것은 ‘궁휼’ 이라는 단어이다(2절). ‘궁휼’ 이라는 말은 곤궁에 빠진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의미이다. 바울이 통례적으로 쓰고 있는 은혜와 평강 이외에 궁휼이란 말을 첨가한 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하나님의 궁휼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참 아들’ 이라고 부르고 있다(2절). 디모데는 바울이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안심하고 어느 곳 이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고린도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바울은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교회에 보낸다고 하였다(고전 4:17). 그런 디모데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궁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바울이 추가한 ‘궁휼’ 이라는 이 한마디 말로써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곤궁에 빠진 자들을 항상 도우신다는 것을 그에게 전해주려 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서신서를 읽은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8월19일(금)/딤후전 1:3~11

제목: 사이비에 유독 잘 넘어가는 스타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계속 머물라 한 것은 그곳에서 이상한 교리와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사람들의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3~4절). 이 이상한 교리들은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졌다(6절).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랐다(7절). 율법이 제정된 것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많은 사이비들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함이다(8~10절). 우리 주변에는 항상 새롭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마치 최신의 유행하는 옷을 입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처럼.... 이들은 오래된 것을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멸한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단지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열광한다. 시대가 변했다고 무조건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뀌고 있는 것은 진리가 자체가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다. 요즘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와 이단들이 개신교는 케케묵은 낡은 사상이며 자신들만이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지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귀가 얇아져서는 안된다. 오래된 것이 진리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